

# 시민안전공제 혜택 제공

### 전주시, 자연재해·안전사고·강도범죄 등으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 지급

국제안전도시인 전주시가 자전거 보행에 이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안전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함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든 시민들이 안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민안전공제는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전주시로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등은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으로, 최대 1000만원(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금 지급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공제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한 건의 사고에 대해 최초 1회만 지급하며 개인보험 또는 다른 보장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공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8년부터 전주시민 자전거보행에도 가입해 전주시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접속하는 시민' 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실시된 지난 4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PC방에서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전주시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도서·학습 놀이용품 제공

###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80세대에 홈스쿨링 키트 전달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맞춤형 도서와 학습 놀이용품을 제공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습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외출이 제한된 아동들의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80세대에 도서와 퍼즐, 놀이교구 등을 담은 홈스쿨링 키트를 전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홈스쿨링 키트는 인지 발달에 좋은 도서와 퍼즐, 플라워캔(식물 키우기), 아이클레이(점토놀이) 등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놀이교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80세대에 도서와 퍼즐, 놀이교구 등을 담은 홈스쿨링 키트를 전달했다.

구로 구성했다. 아동들의 학습공백을 해소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어르신·결혼이주여성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 전주시, '슬기로운 홈트생활'·'마음챙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 어르신과 결혼이주여성 등 피해계층 돕기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의 심리적 위축감과 우울증을 해소하고 건강유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기존 노인이용시설 사업을 코로나 대응 사업으로 수정해 원에 치료와 건강회복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복지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30개소에서 원에치료 전문간사를 파견해 화분 기르기, 생화를 이용한 이야기 수업 등 원에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인지활동 향상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금암노인복지관에서는 미니 화분 등 반려식물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덕진노인복지관의 경우 어르신 자원 봉사대와 함께 소규모 봄꽃 화단을 조성키로 했다.

안골노인복지관은 비타민을 동봉한 어르신 응원 손 편지도 발송 예정이다.

나아가 금암노인복지관과 꽃밭정리 노인복지관에서는 '슬기로운 홈트생활'과 '코로나19를 이기는 어르신 맞춤형 홈 트레이닝' 영상 등도 제작, 배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 독박육아, 외출자제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결혼이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으로 실시한다.

전문 원에치료사와 함께 꽃을 통해 내면심리 상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소그룹별 30분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외부활동 단절로 폭력성이 증가하고 심리적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시민들의 마음 치유를 돕기 위한 마음치유 대책반 운영을 통해 예술치료와 원에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여친 강간·폭행에 음주운전까지

## '막장 의대생' 대학서 퇴출

여친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결국 대학에서 퇴출됐다.

대학 교수회가 낸 '제적' 의견을 총장이 받아들여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의대생은 징계가 확정돼 의사국가시험(의사고시)을 치를 수 없게 됐다.

의사고시는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또는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의대생이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숨기고 다른 의과대학으로 재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당한 고려대 의대생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대학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전북대는 지난 4일 '김동원 전북대 총장의 의대 교수회의 제적 의견이 나온 당일인 지난달 29일 징계대상자인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24)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라도 그만두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 1시간 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칙에 따라 해당 의대생을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무기징계까지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하지만, 제적은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이 강간 범행 후 시간이

### 학칙상 최고 징계 '제적' 전북대총장이 최종 승인 재입학 원칙적 불가·의사국가시험 치를 수 없어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여친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했다는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라도 그만두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6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아쿠르트 동전주점, 홀로어르신 위한 협약 체결

인후3동(동장 이석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영지)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홀로어르신 사각지대 돌봄을 위해 한국아쿠르트 동전주점과 '홀로어르신 사랑잇기(건강음료 전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인후3동 행복동네만들기 사업의 첫 시작으로 '홀로어르신 사랑잇기(건강음료 전달)' 사업은 관내 홀로어르신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사

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웃 사랑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자를 발굴·선정하며, 한국아쿠르트 동전주점은 대상자에 주 3회 아쿠르트 배달 뿐만 아니라 안부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점검하고 2회 이상 미수령 등 특이사항 발견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후3동 행복동네만들기 사업은 관내 홀로어르신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사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한국아쿠르트 동전주점과 '홀로어르신 사랑잇기(건강음료 전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민대상·모범시민상 수상자 선정

### 전주시민대상 △산업기술대상 성도경 △사회봉사대상 안현숙 △체육대상 이동호 △복지대상 김정석 씨·모범시민상 박양순·이홍직·김미선·김세준 씨 선정 발표

전주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공로자와 평소 성실한 봉사정신을 실천해온 시민들이 올해의 전주시민대상·모범시민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주시는 지난 4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 수상자 8명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영예의 2020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산업기술대상 성도경씨(62·남)와 사회봉사대상 안현숙씨(62·여), 체육대상 이동호씨(82·남), 복지대상 김정석씨(73·남) 등 4명이다.

산업기술대상 수상자인 성도경(㈜비나체 대표이사)는 지난 2011년 본사를 전주로 이전한 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사회봉사대상 부문 수상자인 안현숙씨는 지난 1989년 원봉공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전주교도소 교정위원 활동 △반찬나눔 봉사 △사랑의 밤차 자원봉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면마스크 제작 봉사 등 따



성도경 안현숙 이동호 김정석

뜻한 사랑을 지속 실천해왔다.

체육대상에는 지난 35년간 전주시와 전봉체육의 가교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온 이동호씨가 선정됐다. 그는 전국우수, 태극권연합회를 창립해 우수와 태극권의 전국 보급에도 앞장서왔다.

복지대상의 경우 지역의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총사자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김정석 전주시풀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평소 한결같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박양순(노송동) △이홍직(금암2동) △김미선(효자1동) △김세준(삼천2동) 씨 등 4명을 2020년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결정

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전주시민체육대회'에서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민대상은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온 분들에게 주어지는,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 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특히 명칭과 수상 분야를 재단장한 후 첫 수상자인만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된다. /김윤상 기자